



소피아 카림

〈사라짐의 건축〉에 관한 노트

2018년, 소피아 카림은 삼촌이 수감되어 있던 그 시기에 〈사라짐의 건축(An Architecture of Disappearance)〉이라는 제목의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에세이, 아이폰 메모, 수감자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된 그의 글 단편들을, 그 작업의 한 자락으로 소개한다.

수감자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소중한 의례가 되었다. 처음에는 중요한 연대의 형식이라 여겨 편지를 썼다. 내가 캠페인으로 함께한 수감자들이 자신은 잊히지 않았음을 알았으면 했다. 잊힌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편지는 그 이상이 되었다. 이 과정을 “의례”라 부르는 까닭은, 고백하자면, 글쓰기가 때로 내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술가로서 나의 충동은 인간 경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의 서신 교환은 나를 그들의 삶에 가깝게 해주었다. 우리 눈에 가려진 채 삶과 죽음의 가장자리에 놓인, 그 후미진 영토로. 나는 늘 우리의 편지를 공개했다. 그 존재를 함께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편지를 통해 수감자뿐 아니라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갔다. 그들에게 내 그림도 보냈다. 그중 어떤 것은 오직 수감자에게만 보이고 바깥세상에는 절대 내보이지 않을 작품이었다.

어느 수감자에게 편지를 쓸지 어떻게 정했냐고? 내 작업과 삶이 흐르는 방향에 따랐다. 2020년, 인도의 BK-16 사건으로 투옥된 이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국가가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어둡고 끔찍한 방식으로 인해서였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매체들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으며 멀웨어를 통해 컴퓨터에 심어졌다고 폭로했다.) 반테러법으로 구금되어 악명 높은 안다(달걀 모양으로 생긴) 감방에 한참씩 갇혀 있던 아난드 텔툼브데 박사도 BK-16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생일에는 가족들이 일반 대중에게 그에게 편지를 보내주길 호소했다. 아난드와 나의 서신 교환은 그렇게 시작되어 그가 2022년 11월 석방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가 감옥에서 내게 보낸 편지는 지금도 우리 집 거실 벽에 걸려 있다.

G. N. 사이바바 교수와의 인연은 그가 옥중에서 쓴 시들을 읽으며 시작되었다. 90%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인도의 독방에 수감된 채 이렇게 썼다.

내 얼굴은 빛난다,
타오르는 고통의 불꽃 아래,
압제의 감옥, 그 컴컴한 심연 속에서.

나는 그의 사건을 둘러싼 작업을 시작했고, 그의 가족이 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아내 바산타와 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형식의 소통을 시작했다. 나는 사이에게 편지를 쓰고 바산타에게 편지를 보내 그에게 전하게 했다. 사이가 2024년 3월 석방될 때까지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석방되고서 일곱 달 만이었다. 나는 지금도 머릿속으로 그에게 편지를 쓴다.

사형수 팀 영의 경우, 그와의 연결은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그곳의 책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 물건들이 내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것이 잘못된 판결로 수감된 티모시 제임스 영의 소지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팀은 26년 넘게 수감되어 있고, 그 대부분을 캘리포니아 샌켄틴 주립 교도소의 약 1.4m × 3m 독방에서 보냈다.

건축에 관한 에세이 — 01

I

수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 많은 아이디어가 그렇듯이.
내가 무중력 상태일 때 떠올랐다.

II

건축이 인간성의 구현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
고통의 거울은 아름다움, 혹은 쾌락이다.



나는 건축을 인간의 조건에 더 가까이 가져가고자 한다.

건물은 안식, 위안, 기능을 제공한다. 건물은 해방감과 경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 수도 있다.

III

작년 이맘때, 내 삼촌은 감옥에 있었다.

삼촌은 눈을 감으면 창살이 보였다. 나는 우리를 그렸다.

(2019년, 수첩에 기록)

건축에 관한 에세이 — 02

I

암다니 감방(আমদানসিলে), 케라니간지 교도소, 방글라데시. 몸들이 몸들에 짓눌려 있다. 그 자세들이 너무 내밀해서, 오직 내 아이들과 함께일 때만 따라 해볼 수 있다. 이해해보려는 노력으로.

II

나는 그 몸들을 여러 방식으로 그린다. 어떤 때는 고체로, 어떤 때는 공간에 투사된 벡터로 그려낸다. 같은 것을 몇 달이나 그린다. 한참을 그리다 보면 알게 된다. 암다니 감방을 그릴 때 내가 그리는 건 그저 이 하나의 사례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경우라는 것을.

쌓이는 몸들—죽었거나, 살아 있거나, 겨우 살아 있는 몸들, 인간을 굴복시키는 마지막 국면을.

만일 그 더미 안에 내 아이들이 있다면? 나는 선이 알아볼 수 없게 흩어질 때까지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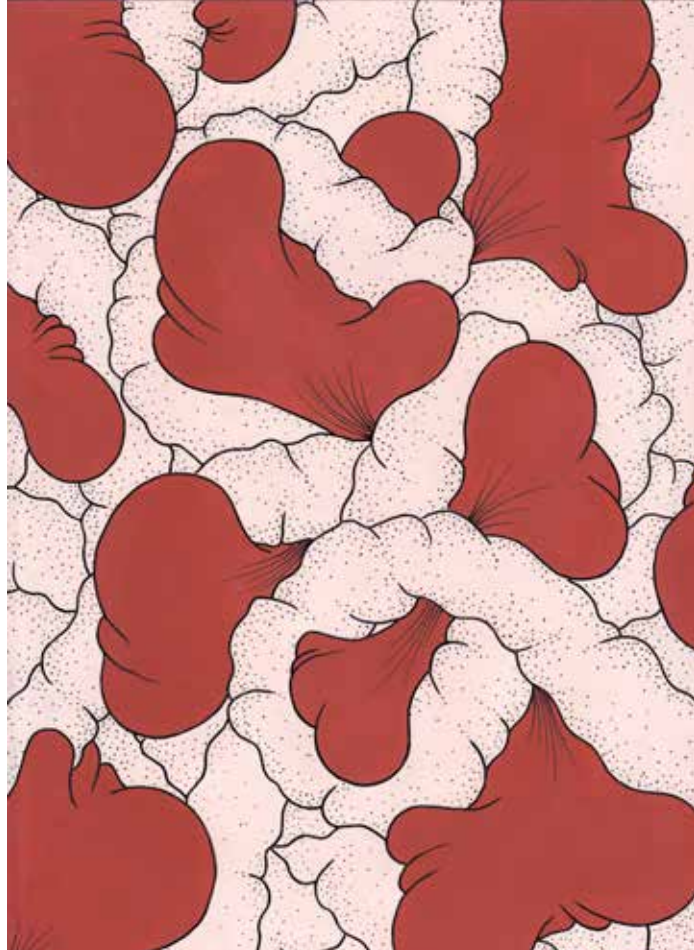
그러면 내가 그린 화면을 가로질러 공간이 갈라진다.

(2019년, 수첩에 기록)



달걀(안다)

나는 좀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아이들 아침 식사로 달걀을 요리하는 중일테다. 달걀의 형상이 머릿속에 박힌다. 나중에 접시에서 껍질을 긁어 내며, 다시 한 번 흥미가 인다. 그것을 붙잡는다. 강박적으로 달걀을 그린다. 단면, 평면, 입면. 다양한 시점에서 그린다. 달걀의 3차원 표면을 2차원 평면으로 펼치면 무한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두 개의 나선 계단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몇 주 동안 나를 사로잡는다. 누구도 내 흥분에 동조하지 않는다.

“딴(𑂣𑂱)” = 벵골어로 달걀이라는 단어. 나는 새 단어를 만든다.

딴스풀(𑂣𑂱spool)-명사-3차원(혹은 그 이상) 공간, 부피, 사물, 또는 실체를 2차원 평면으로 펼친 것.

언젠가 이 단어가 내 작업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예감이 든다. 다만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른다.

3년 후. 사이바바 교수와 텔툼브데 박사는 악명 높은 안다 서클의 특수 경비 감방에 갇혀 있다. 나는 독일에서 청중에게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에 서명해주길 청한다.



안다는 무슨 뜻인가?
달걀을 뜻한다.

(2022년 6월, 아이폰 메모, “안다 감방”)

사이가 보낸 편지

친애하는 소피아에게

2022년 7월 5일에 제게 쓰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예술이 자아내는 향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심하게 앓아 누웠습니다. 이후 두 달간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돼지 인플루엔자였을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함께 기소된 동료는 병원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판두 나로테는 UN이 “가장 원시적인 부족”이라고 지정한 인도 중부의 부족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법, 법정,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

바산타가 편지로 제게 부탁하길, 감방의 창을 통해 제가 즐겨 보는 색을 당신께 전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감방 창문으로 녹슨 철창과 헐어버린 더러운 벽 외에 어떤 색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색은 초록, 잉꼬색 초록입니다. 초록은 어떤 색도 주변에 없는 이 감방에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은 색입니다. 초록은 지구라는 행성이 지닌 생명의 색입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제가 꿈에서 보는 자유의 색은 초록입니다. (...)

(2022년 9월경, 인도 UAPA 반테러법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G. N. 사 이바바 교수가 소피아 카림에게 보낸 편지의 발췌. 10년간 구금된 그는 2024년 3월 석방되었고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터지는 나의 고통

친애하는 사이바바 교수님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동료 수감자들이 이날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폭죽과 환호 속에 모두가 기뻐하는 이날, 당신이 안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새해 첫날이면 늘 잔잔한 슬픔이 머무르지만, 올해는 그것이 한층 또렷합니다.

답장이 늦어 미안합니다. 잉꼬색 초록에 관한 편지,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색, 당신이 꿈에서 보는 색, 그 편지들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시 「새해는 언제인가(When is the New Year)」를 다시 읽었고, 〈사라짐의 건축〉이라는 작업의 초기 건축 드로잉에 이 시의 여러 단어와 공간 개념을 넣어두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이 작업에서 저는 건축을 투쟁과 저항의 언어로서 탐구합니다.

감옥의 시계
터지는 나의 고통
시간의 덩어리가 모인다
괴물 같은 기계

이 모든 단어가 드로잉 속에 등장합니다. 도면은 건축 공간을 “은하의 모든 행성과 별을 지닌 작디작은 우주 전체”의 시스템으로 묘사하는데, 그건 당신이 감은 눈꺼풀 너머에서 나타난다고 했던 겁니다. 드로잉은 주로 검은색인데, 오늘 제가 그토록 강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 공허의 감각입니다. 제가 그린 드로잉 안에서조차 이 공허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

(2023년 1월 1일, G. N. 사이바바 교수에게 보낸 편지의 발췌.)

얇은 자리(Thin Place)

텔툼브데 박사님께

스코틀랜드 남서 해안의 아이오나 섬에서 편지를 씁니다. 박사님을 위해 이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엽서에는 (제가 머무는 곳 부엌 창문에서 보이는) 아이오나 수도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서기 563년에 세워진 옛 수도원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건물 옆에 작은 돌 예배당이 있는데 (이 편지의 뒷면에 있는 지도 옆에 그려두었습니다), 예배당은 비어 있었고 소박한 나무 십자가 옆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16개의 초에 불을 켜했습니다. 스탠 스와미 신부님을 포함한 여러분 16명 모두를 위해. 신부님이 돌아가신 뒤 여러분 모두 하룻동안 단식



농성을 했지요. 연대의 마음으로 저도 그날 런던에서 단식했습니다.
예배당 가까이에 순교자의 만이 있는데, 서기 806년에 68명의 수도사가
학살된 곳입니다.

이 섬은 “얇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의 바위는 35억 년 되었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FREE ANAND”
라고 썼고 바다가 그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단어들을 스코틀랜드의 다른 지역에 있는 벤 볼릭 산에 새겼는데,
그곳의 바위는 6,000만 년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드로잉이 “얇은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박사님께
드로잉을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이미지 속으로 도피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이 행성의 다른 편에 있는 세계, 혹은
이마저 너머에 있는, 스탠 신부님이 거하는 세계. 잘 모르겠습니다. (...)

(2021년 7월, 인도 UAPA 반테러법으로 수감되었다가 2022년 11월 석방된 아난
드 텔툼브데 교수에게 보낸 엽서에서 발췌)

“잘못된 음을 옳은 음으로 만드는 건, 틀린 음 다음에 곧장 연주하는 음이다”

팀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지 넉 달이 지났네요. 어제 당신이 할머니에 관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당신이 아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지요. 의식을 잃고 심정지에
이르렀는데, 자연의 힘이 당신을 이 세계로 다시 보내줬어요. 하얗게
세탁된 국가의 잔혹함이 꽃처럼 만개하는 이 세계로.

당신의 녹음을 듣고서 몇 시간 뒤, 미주리에서 마르셀러스 “칼리파”
윌리엄스가 처형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당신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상상해보려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당신이 쓴 글의 한 조각, 그 빛남 때문에 자주 되돌아가는 그 구절뿐이었거든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심리적이고 징벌적인 마음의 게임을...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해요. 저항해야 하고요.
 뉴스를 켜면, 국가가 펼치는 심리 게임이 비현실적인 규모로 작동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하고, 서방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하죠.
 서방의 무력함, 그 거대한 기만. 제가 쓰는 은행 앱부터 슈퍼마켓까지
 모든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금발에 푸른 눈을 한” 난민들을 도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심연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10월 7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인 1,200명에 대한 집단 처벌로 팔레스타인
 시신 41,000구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인종주의적인 이중잣대를 내 면전에 들이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왜 수감자들을 위해 활동하느냐고요.
 온전한 답을 하려면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늘 진짜 이유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서 내가 받는 것이 여러분이
 제게 받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녹음된 내용의 1시간 25분 지점에서,
 앨버트 우드폭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소비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했다고 알려진 말로 이 편지를 시작했는데요.

“잘못된 음을 옳은 음으로 만드는 건, 틀린 음 다음에 곧장 연주하는 음이다.”

이 인용의 정확한 표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허비 행콕이
 마일스가 실제로 그것을 행한 라이브 공연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일스의 라이브 솔로곡 한가운데서 허비가 큰 실수를 했어요. 마일스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들어와서 허비가 연주한 코드를 옳게 만드는
 음들을 불었죠. 그 순간에 예술만이 아니라 삶의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삶을 비틀거리며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 음을 향해
 나아가려 해요. 옳게 된 틀린 음은 당신이 말한 “고통을 견디며 미소 짓기”
 와 같고,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기 분야에선 “고참 베테랑”이었지요.
 앨버트 우드폭스처럼 말입니다. 그들 모두 저 높은 곳, 선조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운 정원, 달콤한 꽃이 피는 그곳에.
 포옹과 우정의 날개를 보내며, 형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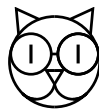
소피아 카림

(2024년 9월, 미국 사형수 티모시 제임스 영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저자 소개

소피아 카림은 런던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건축가이자 활동가이다.
그의 활동은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걸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테이트 모던, V&A, 아트실라 아흐메다바드, 도큐멘타 15 등에서
작업을 선보였다.



Wild Papers 편집자:임고 니어만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2025, Sofia Karim, Eva Fà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